

특허청 심사관, 세계인명사전 등재 '잇따라'

서호선 서기관 '인터내셔널 후즈 후 오브 프로페셔널스 2009년판에 등재
2006년 이후 인명사전 등재 심사관 7명에 달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세계적 인명사전에 잇따라 등재되어 화제다.

특허청은 정보통신 심사국 통신심사과 서호선 서기관이 세계적 전문분야별 인명사전인 '인터내셔널 후즈 후 오브 프로페셔널스(International WHO's WHO of Professionals) 2009년도 판'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네트워크 심사팀 정은선 사무관이 미국 '마크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09년판'에 등재되는 등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특허청의 심사관 중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된 심사관은 7명에 달한다.

이번에 인터내셔널 후즈 후 오브 프로페셔널스 2009년도 판에 등재된 서호선 서기관은 국제표준회의(ISO/IEC)를 비롯해 국내외 저명한 콘퍼런스 및 심포지엄에서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는 산업화 전략들을 다수 발표했고, 국내 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만들어 내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표준특허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았다.

서 서기관은 연세대 산업기술연구소와 신호처리연구소를 거쳐 1997년 박사 특채로 특허청에 임용된 후, 현재 스테레오 시스템(엠펙 서라운드) 분야의 특허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 서기관은 특허 심사업무 외에도 국제적인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박사학위 보유자가 전체 정원 1511명의 26.3%인 398명에 달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서 서기관과 같이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지재권 전문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 1928년 미국에서 설립된 '후즈 후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WHO'S WHO Historical Society)' 재단은 검증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엄선된 과정을 통해 '인터내셔널 후즈 후 오브 프로페셔널스(International WHO'S WHO of Professionals)'의 회원을 선별하여 등재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지식재산권 외교 기지개 활짝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아프리카 협력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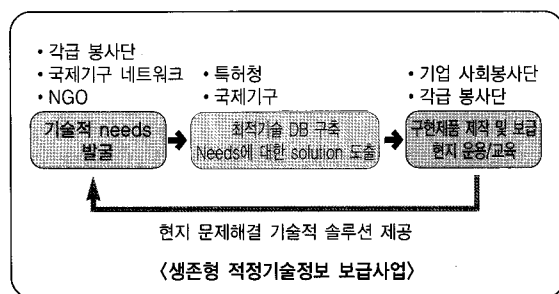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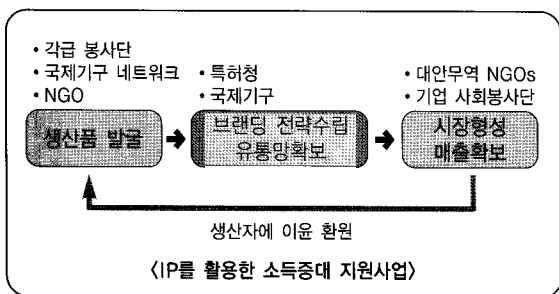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탄자니아 등 15개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재권 분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7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기간(9월 22일 ~ 10월 1일) 중에 열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수혜국이 원하는 니즈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재권 외교가 없었던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고, 이번 협력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아프리카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아프리카 관계자는 “한국은 지재권 인프라가 미흡한 개도국에게 현실 생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지재권의 활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며, 한국이 개도국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비전을 제시하고 생존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와 같은 지구촌 문제에 앞장서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WIPO 관계자도 한국의 개도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이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못시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그동안 정체돼 온 지재권 다자협상무대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특허청은 2004년부터 한국신탁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식재산이 현지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우수상품에 대하여 상표획득과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IP를 활용한 소득증대 지원사업’ 과 개도국 현지사정에 알맞은 적정기술을 발굴, 보급하는 ‘생존형 적정기술정보 보급사업’ 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의 개도국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ipforliving.org)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 정보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보안조직 운영 등 보안관리 우수기관

특허청은 지난 9월 8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보안관제센터 운영(’05년~), 침해사고 전담인력 배치, 사이버침해사고대응 시나리오 재정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보안조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7일 발생한 DDoS 사이버테러 발생 시에는 DDoS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허넷시스템 사이버테러 위기대응 5단계 체계”를 자체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DDoS 공격 시에도 전자출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복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보안 강화활동을 토대로 ’07년~’08년 2년 연속 국가정보원 ‘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08년에 실시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허청 이재훈 정보기획국장은 “지재권 분야에 대한 사이버침해 공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09년까지 KIPO-CERT를 구축 완료하고, ’10년에는 특허-ISAC을 구축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굿네이버스와 MOU 체결

IP를 활용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과 NGO가 손 맞잡아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국제구호개발 NGO가 손을 잡았다. 특허청과 굿네이버스는 지난 9월 17일 서울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개도국의 우수상품에 대하여 상표획득과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IP를 활용한 소득증대 지원 사업’과 개도국 현지사정에 알맞은 적정기술을 발굴, 보급하는 ‘생존형 적정기술 정보 보급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개도국 우수상품에 대한 상표 등 IP 확보 및 브랜드 전략 수립, 특허 정보 등으로부터 적정기술 DB 구축 및 보급,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구현 시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며, 굿네이버스는 해외 지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우수상품 및 기술적 요구사항 발굴, 공정무역 등을 통해 개도국 상품 판매,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적정기술 구현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도국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부기관과 NGO가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경제성장 지원모델을 국제사회와 나눔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과 굿네이버스는 내년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올 11월께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개도국 중 한 국가를 선정하여 상품화 가능한 생산품 발굴과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study project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 ’96년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로 국내 및 북한, 해외 24개국에서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NGO임

영국, 캐나다, 핀란드와 특허심사 고속도로 열린다

고정식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중 합의

영국, 캐나다, 그리고 핀란드에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열릴 예정이다. 즉, 우리 출원인들은 이미 시행 중인 미국, 일본, 덴마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국, 캐나다, 핀란드에서도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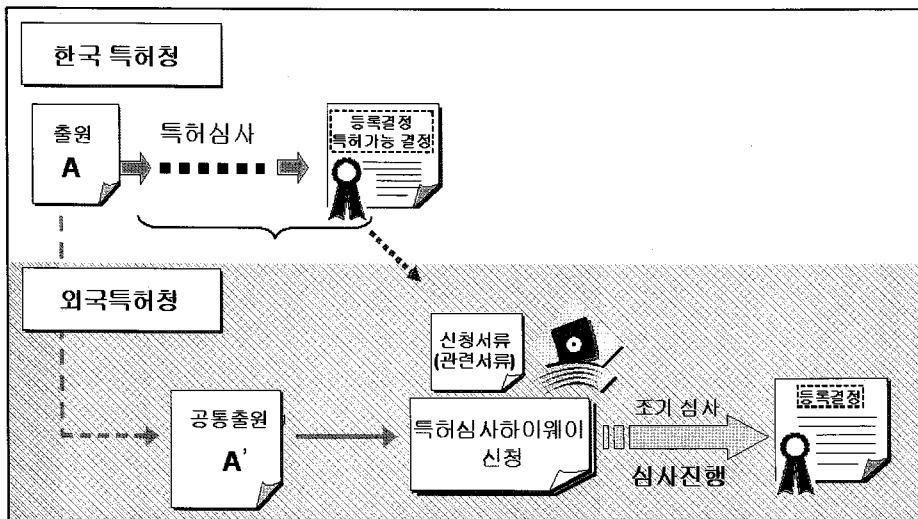
특허청은 지난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국, 캐나다 및 핀란드 특허청장과 연속 회담을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을 합의하였다.

캐나다 및 핀란드와는 이번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미 MOU를 체결한 영국과는 예정대로 PPH를 시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특허가 공동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07.4~), 미국('08.1~), 덴마크('09.3~) 3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 중이며, 영국과 캐나다는 올 10월 1일부터, 핀란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 개념 예시〉



제공 특허청